



삼화페인트 NCS컬러  
SHS 0530-R20B

# Color Magazine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에서 격월로 발간하는 색채 관련 정보지입니다.



S/C/D  
Samhwa Paints Color Design Center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77  
T 031.499.0394 F 031.499.2399



# Contents

MARCH-APRIL 2016 Vol.24



## PART 1

### Trend Review 컬러 트렌드와 관련된 각종 카테고리별 이슈 체크

**EDUCATION** 감성이 자라는 무지개색 다이닝 홀 05P | **FLOWER** 온도에 반응하는 꽃, 카멜레온 블룸 07P |  
**AGRICULTURE** 눈과 입이 즐거워지는 컬러 수박 08P | **POLITICS** 국민을 생각하는 해피그린, 국민의당 09P |  
**ENVIRONMENT** 바다쓰레기의 재활용 10P | **CULTURE** 예술 작품에 영상미를 담다, 미디어아트 11P |  
**EXHIBITION** 또 다른 모바일 세상 MWC 2016 12P

## PART 2

### Color Insight 컬러에 관한 다양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비주얼 인포메이션

**COLOR ESSAY** 교도소에 칠해진 Pink 13P | **DESIGN ITEM** 봄 내음 가득 파스텔컬러 15P |  
**COLOR LOOK BOOK** 파스텔 드림 17P

## PART 3

### Design & Color Talk 컬러 전문가 인터뷰와 업계 최신 소식

**INTERVIEW** 생활을 가치를 빛내는 발견, 삼화페인트 공업도료팀 천상훈 수석연구원 21P |  
**COLOR TREND** Phase-Changing Color 25P | 2016 Season Color In Interior 27P

## PART 4

### About S/C/D 컬러 전문 기업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 뉴스

**DESIGN FAIR** Living & Lifestyle Fair 2016 29P | **UTILIZING PAINT** 도료에 대한 궁금증 33P |  
**IDEA** 참 쉬운 페인팅 DIY 35P



PART 1

# Trend Review

컬러 트렌드와 관련된 각종 카테고리별 이슈

트렌드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리빙, 인테리어, 디자인, 뷰티, 건축, 자동차, 프로덕트 등 최신 이슈들을 제공하는 S/C/D만의 뉴스 큐레이션을 만나보세요.



## EDUCATION

### 감성이 자라는 무지개 색 다이닝 홀

영국 프레스트우드 유아학교가

새롭게 만든 다이닝 홀은

색채 자극에 민감한 아이들을 위해

무지개 색을 이용한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색은 아이들의 정서 함양은 물론 두뇌 계발에 도움을 준다. 컬러 테라피를 유아 교육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아이들은 성인보다 색채 자극에 민감하고, 밝고 화려한 색상을 좋아해 컬러 테라피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주변 환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색 에너지를 이용하면 아이의 두뇌 발달과 풍부한 감성을 길러주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컬러 테라피는 생활공간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영국 버킹엄셔에 특별한 다이닝 홀이 만들어져 주목받고 있다. 프레스트우드 유아학교가 설치한 것으로, 부역과 약 96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뷔페로 구성된 홀이다.

이 작은 홀은 2009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어 큰 인기를 누렸던 로알드 달의 소설 <판타스틱 미스터 폭스>에서 영감을 얻어 무지개 색으로 치장한 프린트가 특히 인상적이다. 작가의 상상력을 조금 더 실감 나게 표현하고자, 다양한 컬러로 칠한 향나무 널빤지를 사용해 마치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가 지상으로 내려온 듯 상상력을 자극한다. 사용된 널빤지는 모두 높이가 제각각인 것이 특징이며, 이를 조화롭게 섞어 지붕 선을 불규칙하게 만들었다. 윗면이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어 하나의 건물이지만 여러 개의 집이 나란히 붙어 있는 듯한 시각적 효과를 준다. 또 프린트의 무지개 색은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들에게 좀 더 활기찬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정서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적용하였다고 한다.



자료출처 한국디자인진흥원(www.designdb.com)





## FLOWER

## 온도에 반응하는 꽃, 카멜레온 불룸

봄을 목전에 두고 연인에게 특별한 꽃을 선물해보자. 바로 카멜레온 불룸이다. 온도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유일한 꽃으로, 단 하나뿐인 사랑을 상징한다.

아름답게 핀 꽃은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꽃이 가진 특유의 향기와 화사한 컬러감 때문이다. 꽃의 여왕이라 불리는 장미, 순결을 상징하는 백합, 소녀 같은 느낌을 주는 국화 등 꽃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저마다의 매력은 다르다. 그래서 연인에게 꽃을 선물할 때는 받는 사람의 이미지를 생각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연인들의 사랑이 만개하는 봄을 앞두고 조금 이색적인 꽃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이 들린다. 바로 특정 온도가 되면 색상이 바뀌는 꽃, 카멜레온 불룸이다. 온도 변화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열색성 잉크로 칠한 것으로 2가지가 있는데,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꽃인듯 하다. 하나는 액체형 크리스탈 염료를 사용해 염색한 것으로 27℃가 되면 마치 딱정벌레의 껍데기 같았던 검은색이 적갈색과 암녹색을 거쳐 짙은 파란색으로 변한다. 또 다른 꽃은 31℃에서 색상이 변하는 검은색 서모크로믹 염색 후 향이 나는 크리스탈 스프레이를 뿌려 고온에서 굽는다. 이때 꽃이 가진 본연의 색이 발현되는데, 질고 강렬한 색상으로 인해 카멜레온 불룸은 일반 꽃과는 다른 강렬한 느낌을 주게 된다.

꽃의 종류는 개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워크숍을 통해 직접 장미, 아네모네, 난초 등도 색깔이 변하도록 만들어볼 수 있다.



자료출처 한국디자인진흥원(www.designdb.com)

## AGRICULTURE

## 눈과 입이 즐거워지는 컬러 수박

수박은 초록색 껍질과 검은색 줄무늬, 빨간색 속살이 특징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할지도 모른다. 다양한 컬러 수박 재배가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자료출처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이색 컬러 과일이 인기를 끌고 있다. 노란색 혹은 초록색 방울토마토, 골드키위 등이 대표적이다. 노란색이나 초록색 방울토마토와 골드키위는 매년 더 많은 인기와 매출을 올리는 농가의 효자 품목으로 일반 과일보다 가격이 10~20% 비싸지만, 당도가 높아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 최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달콤한 먹을거리를 찾는 수요에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세하면서 고당도 과일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것. 실제 컬러 방울토마토는 9브릭스 이상, 골드키위는 8브릭스 이상으로 일반 과일보다 10~20% 달다.

이런 흐름에 가세해 전북 정읍시가 올해부터 씨 없는 수

박을 지역 대표 작목으로 특성화했다. 정읍시는 2014년부터 씨 없는 컬러 수박을 연구해왔으며, 그간의 기술을 바탕으로 씨 없는 컬러 수박 단지 조성과 함께 생산을 본격화하는 것. 이번에 생산하는 수박은 겉이 까만 수박과 노란 수박 2가지 품종이다. 그동안에는 이색 상품으로 구색을 갖추기 위해 소량씩만 재배하던 씨 없는 컬러 수박을 이제 마트에서 손쉽게 살 수 있으며, 추석 전에는 정식 출하할 예정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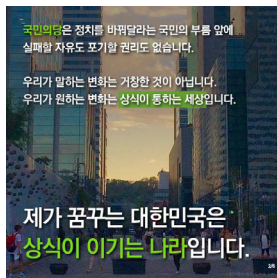
눈으로 보는 것도 즐겁지만 맛도 뛰어난 컬러 과일, 앞으로는 또 어떤 과일이 출시되어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지 기대된다.



## POLITICS

## 국민을 생각하는 해피그린, 국민의당

최근 정치 분야에서도 컬러를 이용한 감성  
마케팅이 등장했다. 올해 창당한 국민의당 고유색은  
초록색이다. 행복이라는 뜻을 더한 '해피그린'으로  
한층 부드럽고 밝은 느낌을 준다.



### 국민의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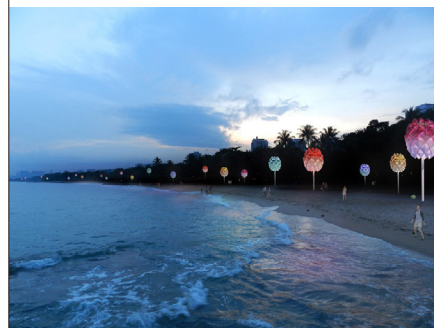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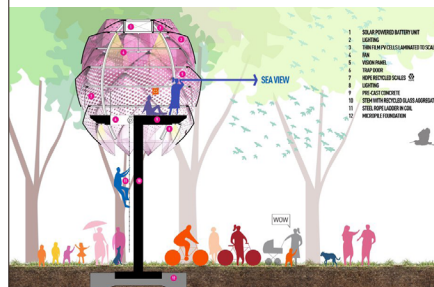
색은 스스로를 드러내는 또 다른 소통 방식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색에 대한 선호도가 그 사람의 성향이나 이미지를 결정하기도 한다. 열정적이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빨간색이나 주황색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으며, 독립적이고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회색, 편안한 분위기를 선호하는 사람은 초록 계열을 선호한다. 최근에는 정치 분야에서도 컬러를 이용한 감성 마케팅이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열정적이며 생명력 넘치는 빨간색은 새누리당으로 정당 색 중에서 가장 과감하게 혁신을 시도했다 할 수 있겠다. 붉은색이 내포하고 있는 젊음, 열정, 추진력 등의 특성이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바와 같다는 의미일 터. 지금은 해산된 통

합진보당의 색은 보라색이었다. 심벌에는 역동성을 상징하는 물결무늬를 넣어 진보와 변화를 표현했다. 올해 2월에 창당한 국민의당의 상징색은 초록색이다. 여기에 행복을 의미하는 형용사를 합쳐 '해피그린'이라고 명명했다. 그동안 국민의당은 신당의 의미를 살리고자 새싹과 같은 느낌의 연두색을 대표색으로 써왔지만, 좀 더 강한 느낌을 주고자 채도가 높은 색을 선정했다고 한다. 초록색이 안정과 평화, 신뢰, 희망, 젊음을 상징하는 색인 것처럼 국민의당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뢰와 희망을 주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하겠다. 더불어 새로운 정당으로서, 새 정치를 선보이고자 하는 의지를 함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ENVIRONMENT

## 바다 쓰레기의 재활용

생활의 질과 편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재활용 쓰레기의 양도 증가하고 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남은 플라스틱 컵이 환경을  
위협하는 부메랑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료출처 한국디자인진흥원(www.designdb.com)

매년 바다는 더 많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쓰레기는 일회용 테이크아웃 컵, 음료나 생수병 같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이다. 전체 쓰레기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양인 데다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 시간이 지나도 분해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는 파도를 타고 해변을 부유하면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돌변한다. 이로 인해 매년 100만 마리의 바닷새와 10만 마리의 바다 생물이 죽는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는 플라스틱 등의 재활용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최근 싱가포르에서는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술방울 모양의 해변 오두막을 만들었다. 플라스틱을 모아 색깔별로 나누고 작게 자른 다음 가열해 새로운 모양의 타일을 만든 것으로, 쓰레기를 재활용한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화사하고 산뜻한 컬러감이 돋보인다. 또 밤이 되면 전면에 조명이 들어와 해변을 한층 아늑한 공간으로 만들어 준다. 태양전지를 사용하고 있어 친환경적이며, 밧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바다 전망대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쓰레기를 재활용한다는 의미는 물론, 지구 생태계가 처한 상황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환경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는 의도에서 만들었으며, 앞으로는 호주에서도 만나볼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 CULTURE

## 예술 작품에 영상미를 담다, 미디어아트

미술 작품들을 순차적으로 관람하다 보면  
무엇을 보았는지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좀 더 다양화된 예술을 원한다면 색채  
미학으로 가득한 미디어아트를 체험해보자.



이이남, 모나리자 페허



이이남, 신기스



반고흐 인사이트 : 빛과 음악의 축제

최근의 예술은 탈캔버스를 꿈꾼다.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전시, 많은 사람이 보고 이해할 수 있으며 감동할 수 있는 이상화된 예술이 주류로 등장한 것이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미디어아트다. 전 세계적 대세로 자리매김한 미디어아트는 대중매체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미술에 접목한 것이 특징인데, 시각적으로 더 뛰어난 영상미와 청각, 관람객이 직접 작품과 하나 될 수 있는 체험까지, 오감 만족을 선사한다.

미디어아트의 대표 주자는 바로 문화역 서울284에서 전시하고 있는 〈반고흐 인사이트 : 빛과 음악의 축제〉(전시 기간 2016. 1. 8~4. 17)다. 위대한 이상을 꿈꿨던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남긴 명작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음악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전시다. 영화

관을 방불케 하는 초대형 캔버스, 360도로 공간을 휘감는 스크린으로 모든 공간이 캔버스화되어 화사하게 빛난다.

국내 작가의 미디어아트 전시도 이에 못지않게 화려하다.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의 〈디지털 수(水)〉 전에서는 '제2의 백남준'이라 불리는 이이남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백 년이 지난 명화들이 디지털 기술과 만나 영상 매체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인다.

그동안 예술작품이 다소 어렵게만 포장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디어아트는 대중과 호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전시와는 차별화된다. 지루하지 않고 신선하며 색다른 전시, 미디어아트를 만나보자.

## EXHIBITION

## 또 다른 모바일 세상 MWC 2016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6’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모바일이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는 미래 모바일 세상을 한발 앞서 관람할 수 있는 특별한 장이었다.

©LG전자



모바일 세상의 진화는 실로 놀랍기만 하다. 불과 10년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손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매일이 경이롭기 그지없다. 또 한계가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휴대전화로 신문을 보는 것이 신기했던 시절은 불과 1년 안에 종식되었으며, 이제는 전 세계인과 SNS를 할 수 있다는 것이, DSLR 카메라 같은 고화질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온 것이다. 그런 면에서 더욱 이목이 집중되는 전시가 바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6’이다. 올해로 26번째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에서는 신작 스마트폰과 VR(가상현실) 기기,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커넥티드 카 등 다

양한 모바일 신제품들이 앞다퉈 소개되었다.

지난해에는 스마트폰이 강세였다면, 올해 MWC의 주인공은 단연 미래 성장 동력으로 불리는 ‘VR(가상현실)’이었다. 거의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VR 기기를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이다. 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맞대결도 관심을 모았다. 두 회사는 이례적으로 같은 날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7과 G5를 나란히 선보였다. 지난해 5G 시대를 선언한 통신사들은 올해 그 핵심 기술을 선보였다. SK텔레콤은 사상 처음 공공장소에서 20.5Gbps 속도로 데이터 전송을 시연했고, KT는 스웨덴 에릭슨 연구소에서 성공한 25.3Gbps 속도 데이터 전송 실험 영상을 공개했다.



최정원/무주



## PART 2 Color Insight

컬러에 관한 다양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비주얼 인포메이션

<컬러매거진>에서는 매호 주목해야 할  
컬러에 관한 이야기와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새로운 자극을 제공합니다.

### COLOR ESSAY

## 교도소에 칠해진 Pink

글 김향란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 센터장

분홍색은 보는 것만으로도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준다.

심신의 안정과 긴장을 풀어주는 컬러 테라피 효과로 인해 생활 공간은  
물론 사회 곳곳에서 다양하게 활용된다.

베이커밀러 분홍색(Baker-Miller Pink), 주정뱅이 분홍색(Drunk Tank Pink), 쿨다운핑크 프로젝트(Cool down Pink Project)는 모두 교도소에 칠해진 분홍색 이름이다. 모두 분홍색이 가지고 있는 색채 효과를 통해 폭력성, 분노, 억압, 불안, 대립 등을 억제해 교도소 내 수감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빈번한 폭력을 줄이기 위해 사용된다.

### 다양한 핑크, 교도소를 수놓다

시애틀에 있는 미국 해군교도소 진 베이커 선임과 밀러 교도소장, 두 사람의 이름을 합쳐 만든 베이커밀러 분홍색은 밝고 선명한 컬러다. 두 사람은 교도소 수감자들을 위해 핑크 컬러 유치장을 만들고, 새로 들어오거나 폭력성이 짙은 수감자들이 그 안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지 조사했다. 약 7개월 동안 실험했는데, 신기하게도 실험 기간 내내 폭력 사건이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로 미국 전역의 다른 교도소에도 특별 유치장에는 이 색을 칠하게 되었다.

분홍색 트렁크를 상상하면 귀엽고 양증맞으며, 배를 움켜쥐고 웃는 모양이 떠오른다. 게다가 배불뚝이 술주정뱅이에게 이 커다란 분홍색 트렁크를 입혔다고 상상해 보자. 유쾌한 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캘리포니아의 아주 작은 마을 구치소에는 난폭하기 짝이 없는 술

주정꾼을 위한 분홍색 유치장이 있다. 베이커밀러 분홍색의 영향을 받아 만든 유치장으로 난폭한 주정꾼들이 단골이라고 한다.

스위스 내 교도소 중에서 폭력 사건 발생 빈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페피콘 교도소는 수감자들의 폭력성 억제를 위해 30개 감방을 분홍색으로 단장하는 쿨다운핑크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분홍색은 분노, 대립, 불안, 공격성 등을 억제하고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15~20분 정도면 효과가 나타난다.

일본 에히메 현에 있는 여성 전용 교도소 다쿠야는 온통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다. 문과 창틀, 이불과 죄수복, 심지어 의료 시설이나 분만 시설 등 모든 것이 분홍색이다. 여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것으로 폭력성을 억제하고 긴장과 압박감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린다.

이외에도 분홍색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미식축구나 복싱 경기에서는 상대방의 경쟁심을 가라앉히기 위해 라커룸을 분홍색으로 칠하기도 하고 분홍색 트렁크를 입는 것으로 강한 상대의 무력화를 시도한다. 또 자선단체 봉사자들이 분홍색 유니폼을 입으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기금이 모인다고 한다. 모두 컬러에는 감정적 변화를 일으켜 행동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 DESIGN ITEM

## 봄 내음 가득 파스텔컬러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는 파스텔컬러가 봄바람처럼 밀려온다. 집 안 곳곳에 놓아두고 느끼는 로맨틱 파스텔컬러 베리에이션.

**1** 종이에 모양의 자기 소재 서빙 볼. 레몬, 방울 토마토 등의 디저트를 담기 적당하다. 스칸. **2** 덴마크 디자이너 브랜드 렉키보이선데이의 컬러 러그. 최고급 알파카를 사용해 핸드메이드로 제작했다. 집불량. **3** 화려한 컬러감으로 공간을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쿠션. 카레. **4** 벽장식이나 식기, 27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나비 장식. 도데카. **5** 사랑스러운 색감의 플라워 프린트 머그잔. 영국 브랜드 버얼리 제품이다. 에잇컬러스. **6** 아이들의 의자로도 사용할 수 있는 새 모양의 빅 쿠션. 봄퍼니처. **7** 간접 조명으로 유명한 독일의 베이비 그린 라핀 램프. 수작업으로 만들어 표정이나 자세가 제품마다 조금씩 다른 것이 특징이다. 에버블루밍. **8** 세련된 베이비 핑크 컬러의 도트 체어. 거실이나 서재, 어디에 두어도 조화를 이루는 스테디셀러 디자인이다. 에이후스. **9** 호두나무, 참나무, 뽕나무, 느릅나무 등 16가지 나무 소재를 사용해 만든 아기자기한 분위기의 서랍장. 웰즈. **10** 스웨덴 시골 마을의 여름을 트레이에 프린트한 사가품의 가든 시리즈. 스칸. **11** 가마솥 원리를 재현한 프리미엄 통주물 냄비로, 오랫동안 둥근히 끓이는 요리에 제격이다. 네오플랜. **12** 방안을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만들어주는 것발 모양의 캔들 홀더. 이노메싸.





## COLOR LOOK BOOK

## 파스텔 드림

공간 속에 은은하게 어우러질 줄 알면서도,  
포인트 컬러로서의 기능까지 톡톡히  
해내는 파스텔컬러. 꿈을 꾸듯 우아한 이미지를  
가진 파스텔컬러의 무한 변주.



1



2

**1** 신혼집이라면 좀 더 과감하게 컬러를 고르자. 거실 벽을 핑크로 연출하고 주방의 조명과 식탁, 천장의 몰딩과 문은 화이트 컬러로 선택하면 전체적으로 화사한 느낌이 든다. **2** 파스텔컬러 가구는 과감한 시도라는 느낌을 주지만, 막상 놓아보면 튀지 않고 주변과 잘 어우러지는 소박한 매력을 느끼게 한다. **3** 창의적인 아이 방으로 만들고 싶다면 보라색 계열을 추천한다. 톤 온 톤 파스텔컬러를 침대와 쿠션 등에 배색해 활기 있고 개성 넘치는 방으로 꾸며보자. **4** 민트 컬러 특유의 화사함이 돋보이는 세라믹 재질 저그, 루밍. **5** 2년에 걸쳐 커브와 예지, 디테일을 수없이 검토하여 만든 비수 체어. 다양한 컬러와 두 종류의 다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노메싸. **6** 소품 선택만 잘 해도 인테리어의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포인트가 되면서도 이질적인 느낌이 들지 않도록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7** 벽면을 따라 번지듯이 부드럽게 그려데이션 페인팅 효과를 주면 한층 여유로운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



5



6



7



4





**1** 군더더기 없는 우드 소재 가구와 파스텔컬러 포인트 벽지로 완성된 사랑스러운 분위기의 인테리어. 나머지 가구는 화이트를 선택해 정갈한 느낌으로 연출한다. **2** 1950년대 레트로 무드에서 영감을 얻은 프랑스 로레토의 옷장 루키. **3** 파스텔컬러 그라데이션 컬러 배색으로 사랑스러운 느낌을 주는 제품. 사랑스러운 컬러가 마치 음식까지도 솜사탕처럼 만들어 줄 것 같다. 패딩컬러. **4** 방 전체를 밝은 톤의 화이트로 연출하고, 다양한 톤의 파스텔컬러 소파와 소품을 배치하면 좁은 공간도 넓어 보이는 효과를 발휘한다. **5** 톤 다운된 블루 컬러는 침실의 아늑한 분위기를 배가한다. 패브릭이나 가구, 소품 등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6** 크림 컬러의 패브릭 벽지로 화사한 느낌을 연출하고 친구와 쿠션, 의자 등으로 포인트만 주어도 사랑스러운 느낌이 든다. **7** 가운데 부분이 움푹 파인 신뜻한 민트 컬러의 아날로그 벽시계. 이노메샤. **8** 집 안의 자투리 공간을 서재 혹은 게스트 룸으로 활용해보자. 벽은 톤 다운하고 천장은 밝은 색으로 연출하면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발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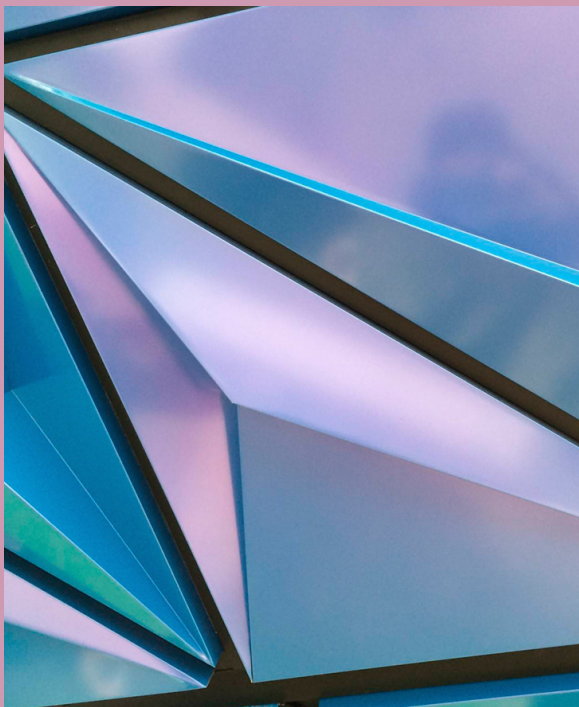




PART 3

# Design & Color Talk

컬러 전문가를 위한  
전문가 인터뷰와 업계 최신 소식



컬러 전문가를 위한 스페셜 섹션입니다. 컬러와 관련한 이슈는 물론 업계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고, 국내외 디자인 · 리빙 · 인테리어 페어 등 관련 현장 소식을 전달합니다. 컬러 전문가의 감각적인 시선으로 풀어낸 이야기를 주목해주세요.

## INTERVIEW

### 생활의 가치를 빛내는 발견 삼화페인트 공업 도료팀 천상훈 수석연구원

**Q** 감온도료란 무엇이며, 주로 어떤 부분에 적용되고 있는가?

도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인트, 바니시, 합성수지 등이 모두 도료의 범주에 포함된다. 물론 그 외에도 다양한 도료가 있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감온도료다. 흔히들 시온도료라고 부르는데 일정 온도가 되면 카멜레온처럼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카멜레온도료라고도 한다.

시온도료는 조금 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자외선이나 빛에 반응해 색이 달라지는 감광도료와 체온에 반응하는 촉광도료, 물에 반응하는 수분변색도료 등도 시온도료에 포함된다. 감온도료에는 온도가 올라가면 색이 변했다가 내려가면 다시 원래 색으로 돌아오는 가역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비가역적인 제품 두 종류가 있다. 또 재료로 무기안료를 사용했는지 유기안료를 사용했는지에 따라라도 제품의 특성이 달라진다. 시중에서는 뜨거운 물을 부으면 색깔이 바뀌는 머그잔, 체온에 반응해 색이 달라지는 티셔츠, 물에 젖으면 색이 변하는 우산 등의 제품이 출시되어 있다. 그리고 맥주 라벨에도 적용된 적이 있다. 맥주를 먹기 가장 좋은 온도인 7°C가 되면 마크가 나타나는 것도 이 도료를 이용한 것이다.

**Q** 특허를 출원한 감온도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감온도료는 일정 온도에 반응하여 색이 변하는 것이다. 70~100°C 온도에서 색이 바뀌었다 다시 돌아오는 도료이며, 주방 기구에 사용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70~100°C까지 컬러가 유지되고 요리가 끝나면 다시 원래의 색으로 돌아온다. 색이 변하면 이제 요리가 가능한 온도가 되었다는 것을 주부들

물이 끓는 온도를 냄비의 색 변화를 통해 알 수 있다면 요리하는 내내 신기하고 즐거울 것이다.  
이와 관련된 특허 출원을 앞둔 천상훈 수석연구원에게 감온도료에 대해 물었다.







물에 반응하는 수분변색도로



천상훈 수석연구원의 감온도로 연구자료

에게 알려준다는 의미도 있다.

이번에 개발한 제품은 감온도료를 냄비와 프라이팬의 상단 부분에 투톤으로 적용했다.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개발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레데이션 효과로 디자인적인 느낌을 주고자 했던 의도도 있었다. 냄비와 프라이팬을 삼중 코팅해서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제품 본체에 감온도료를 적용한 것이 최초라 할 수 있다.

개발은 1월쯤 완료되었고 현재는 특허 출원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상태다. 특허는 주방가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리콘 수지를 이용해 감온도료를 만든 것과 다층막 코팅에 대한 것이다. 4~5월쯤 특허를 받게 되면 제품도 정식 출시될 예정이며 국제특허는 출원 준비 중에 있다.

**Q 감온도료를 주방가구에 적용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 그리고 업계의 반응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

개발팀에서는 개인적으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의뢰를 받아서 개발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이번 연구는 홈쇼핑 담당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시작하게 되었다.

이번 연구는 좀 더 새로운 상품을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적극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방가구는 다양한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컬러를 빼놓을 수 없다. 주방가구 디자인에는 한계가 있고,

컬러 또한 모든 색이 제품으로 출시되었다 해도 좋을 만큼 다양화되어 있다.

그렇지만 아직 물이 끓으면 냄비의 색깔이 바뀌는 제품은 전무후무하다. 의뢰 업체에서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고, 완제품 출시 후 소비자들의 반응 또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다.

**Q 개발한 감온도료를 앞으로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지 알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 연구 계획은 무엇인가?**

이번 연구는 핑크와 레드, 2가지 컬러를 위주로 개발을 진행했다. 그래서 특허를 받은 후 좀 더 컬러를 다양화할 예정이다. 도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사실 재료인 안료를 구하는 것이었다. 시중에는 생각보다 많은 감온도료가 있지만, 대부분 40℃ 선에서 반응한다. 100℃ 이상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안료는 구하기가 어렵다.

원료 수급이 진행된다면 좀 더 높은 온도에서 반응하는 감온도로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 감온도료를 다양한 분야에 적용해볼 의향도 가지고 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성용 고데기와 헤어드라이어 등이고, 가정용 다리미 등에도 적용해볼 생각이다.



아트 레베데프 스튜디오의 머그잔.



## COLOR TR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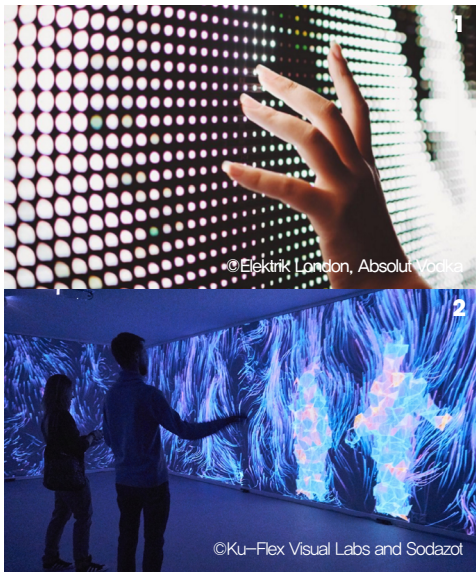
## Phase-Changing Color

빛과 조명에 따라 제품이 가진  
고유의 색이 달라진다.  
2016년은 변화하는 컬러에 주목하라.

## TREND 1

## DIGITAL INTERACTION

관람객들이 좀 더 다채로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터랙티브 디지털 작품들에 다양한 컬러와 레이어의 조명이 적극 활용되었다.



1 스웨덴 'Absolut Vodka'가 선보인 'Elektrik Nights' 시리즈 중 하나. 영국에서 선보인 인터랙티브 디지털 설치작품으로 최면을 거는 듯한 느낌의 레이저 쇼를 보여준다. 파노라마 같은 LED 스크린이 음악, 분위기, 관람객의 움직임에 반응한다. 2 모스크바에 있는 디자인 스튜디오 'Ku-Flex Visual Labs'와 러시아 출신 비디오 아티스트 'Igor Talamikov'의 작품인 'Quantum Space'. 관람객의 모습이 독특한 조명 아래에서 기하학적인 형상으로 변한다.



## TREND 2

## LIGHT-REFLECTIVE

조명에 따라 달라지는 역반사 소재는 다이내믹한 연출에 제격이다. 또 야광 소재는 스포츠웨어,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홈 액세서리에 개성과 실용성을 부여한다.

'Nike'가 선보인 '2015 Flash Pack Footwear'와 패션 스타일링은 멀티 컬러의 반사 소재를 사용하여 약한 조명 아래서도 시선을 사로잡는다.



## TREND 3

## RESPONSIVE PIGMENTS

카멜레온처럼 주변 환경에 반응하는 소재는 언제나 새롭고 흥미롭게 느껴진다.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건축, 제품 패키징,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부문에서 이러한 소재의 중요성과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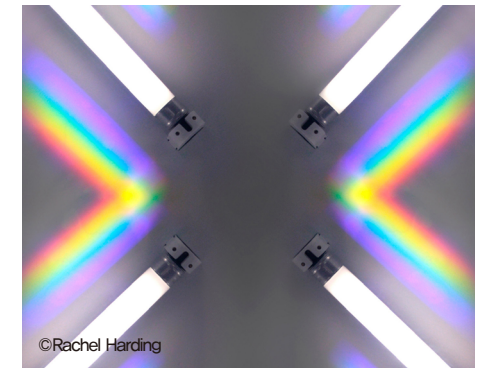
빛에 반응해 무지갯빛 그라데이션을 보여주는 멀티 컬러 페인트, 내구성을 견비해 주택 외장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보는 각도나 햇빛에 따라 다양한 그라데이션 컬러를 보여준다.

## TREND 4

## PRISMATIC EFFECTS

프리즘처럼 빛을 분산하는 컬러 스펙트럼은 지속적인 인스피레이션에 제공한다. 빛과 다양한 컬러 조합으로 한층 흥미롭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Rachel Harding'의 'Wonderfluoro Lights'는 형광등 빛을 회절하여 멀티 컬러를 만들어낸다. 회절 필름을 이용해 형광등 빛을 수천 개 다른 파장의 빛으로 분리함으로써 레인보우 효과를 발휘한다.



## TREND 5

## NEW IRIDESCENCE

개성 넘치는 디자인을 위해 멀티 톤으로 반사되고 굴절되는 소재가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 'Mac'의 화장품 패키지는 무광 화이트 위에 무지갯빛 호일 그라픽을 이용해 여러 겹을 겹쳐놓은 듯한 효과를 냈다.

올해는 보는 각도에 따라 컬러가 바뀌는 제품이 다양하게 등장할 전망이다. 제품의 특성에 맞는 멀티 컬러는 유니크한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더 큰 만족을 준다.

원본출처 : www.stylus.com





## CFT TREND

2016 Season Color  
In Interior

글 이미리 주임연구원

Pink or Yellow. 2016년 컬러는 여리지만  
힘 있고, 부드럽지만 강인하다.

노란색은 골드에서부터 베이지, 브라운까지 다양한 컬러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과거 골드는 왕권의 상징이었으며, 진정한 자연의 색을 추구했던 인상주의 화가 고흐에게는 빛을 대표하는 색이었다. 과거에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현대사회에서 노란색은 문화와 관습, 상징적인 의미를 떠나 창조적이고 자유로우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색이다. 노란색이 있는 공간은 천진난만한 아이를 연상하게 하고, 노란 원피스를 입은 여자는 날씨 좋은 따스한 봄날을 연상시키며 긍정적인 생각의 에너지를 전달한다.

분홍색은 우아하고 달콤하며 섬세할 뿐 아니라 여성을 상징하는 색으로도 표현된다. 분홍색의 달콤함은 아늑함을 내포하고 있어 폭력과 분노를 가라앉히고, 불안과 대립을 억제하는 데 효과를 발휘한다.

분홍색 옷을 입은 여자를 보면 모든 남자가 눈길을 고정하는 것처럼 여성적 매력을 대표하는 색이지만, 한때 남성복에서도 분홍색 셔츠가 유행한 것을 보면 남녀 구분 없이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색이다. 이것은 빨간색이 가진 에로티시즘에서 채도는 감소했지만, 관능성이 남아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인지도 모른다. 분홍색 셔츠를 입은 남자를 보면서 색시함을 느낀다는 여자가 더러 있는 이유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분홍색이 남자의 마음만 흔드는 것은 아니다. 사실 분홍색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을 부르는 색이라 정의하는 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 노란색과 분홍색 안에 내포된 긍정적인 에너지는 현대인이 갖고 있는 분노와 불안 심리에 안정감을 주고, 이를 창조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 2016 SEASON COLOR

## MILK FORM PINK SH S 1010-R

'장밋빛 인생'이란 의미에서 분홍색은 최상의 건강 상태와 풍요로움을 상징한다. 결혼 10년 차 맞벌이 부부에게 집은 편안한 휴식을 위한 공간이며, 안정된 환경을 상징한다. 톤 다운된 분홍색은 심리적 진정 효과를 가지고 있어 심신을 위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한다. 달콤한 인상을 주는 분홍색은 누구에게나 사랑스럽고 행복한 에너지를 전달한다. 다만 분홍색을 선택할 때는 집 안의 기존 가구와 잘 어울리지를 생각하고,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가구가 없는 벽면을 사용해 전체 공간과의 어울림을 고려해야 한다.

SH S 1010-R

## LEMON CREAM YELLOW SH S 0530-Y10R

노란색은 공간을 밝고 활기치게 만든다. 밝은 에너지를 가진 색으로 아이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도록 돕는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아이가 활발하고 적극적인 사회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신체적, 정서적, 지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에는 아이 스스로 자신만의 독립적 공간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사색하고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는데, 노란색은 이러한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다만 다채로운 컬러 가구와 함께 꾸민다면, 전체보다는 한쪽 포인트 벽면에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SH S 0530-Y10R



PART 4

# About S/C/D

컬러 전문 기업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 뉴스

업계와 시장의 움직임을 이끌어가기 위해 설립된  
R&D 센터,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의  
다양한 활동과 사내외 워크숍 활동, 해외 정보  
라이브러리로 채워집니다.



## DESIGN FAIR

### Living & Lifestyle Fair 2016

국내를 대표하는 건축 전시회 <경향하우징페어>와 인테리어  
전문 잡지 <리빙센스>가 공동으로 기획하여 열리는 전시  
리빙앤라이프스타일 페어가 올해 두 번째로 킨텍스에서 마련되었다.  
그 뜨거웠던 현장의 열기를 전한다.

지난 2월 24일부터 5일간 킨텍스에서는 <리빙앤라이프스타일페어 2016(Living & Lifestyle Fair 2016)>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올해로 31주년을 맞이한 국내 대표 건축 전시회인 <경향하우징페어>와 인테리어 전문 잡지 <리빙센스>가 공동으로 기획하여 열린 전시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되었다. 지난해 18만 명의 참관객을 동원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올해에는 현대인들에게 집의 의미가 점점 커져가는 추세를 반영하여 '나만의 취향을 담은 공간'을 테마로 특별하게 진행되었다. 특별 기획관 및 3개의 기획 존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서는 전시뿐 아니라 전문가들의 강연, 컨설팅 등이 연일 다채롭게 펼쳐져 기존의 전시회들과 차별화된 새로운 개념의 전시회를 선보였다.

#### 2016 홈 트렌드, BASIC IS THE BEST

전시 기간 가장 많은 관람객을 모았던 특별 기획전 '2016 홈 트렌드' 관에서는 'BASIC IS THE BEST'라는 주제로 <리





빙센스)와 디자이너 조희선이 오래 살아도 불편함이 없고 질리지 않는 집 인테리어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가족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집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기획 존은 키친 라이프 존, 프리미엄 인테리어 컨설팅 존, 넥스트 제너레이션 존 등 3개의 테마로 나누어졌다. 그중 첫 번째인 키친 라이프 존은 주방가구, 주방가전, 테이블웨어 등을 중심으로 전시되었다. '쿡방'의 인기를 반영하듯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스케치의 전시 부스인 쿡킹 테이블에서는 가정식 이탈리아 요리의 선두주자 배예환 셰프의 쿡킹쇼가 열려 참관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다.

두 번째 기획 존인 프리미엄 인테리어 컨설팅 존에서는 한성아이드, 바오미다, 카민디자인, JS Pictures 등 전문가들이 직접 알려주는 인테리어 컨설팅과 함께 인테리어 관련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 번째 기획 존인 넥스트 제너레이션 존은 신진 브랜드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공간으로 기획하여 대한민국 리빙 및 인테리어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 일상생활과 밀접한 2016 라이프스타일 제안

리빙앤라이프스타일페어는 기간 내내 열린 다양한 강연과 행사를 덕분에 더 전문적이고 특별한 전시로 기억되었다. 인테리어 앱 하우스 감지환 디자이너의 '예비 신혼을 위한 인테리어 tip'을 시작으로 까린 인터내셔널 조귀용 대표의 '2017 S/S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및 디자인 트렌드', 마크 로밀엠브레인 윤덕환 이사의 '2016 대한민국 트렌드 : 사람들이 집에 더 오래 머무는 이유'가 진행되었다. 그 외 인테리어 전문가들의 강연과 컨설팅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트렌드, 라이프스타일,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총체적인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특히, 프랑스 트렌드 전문 기업인 까린 인터내셔널이 발표한 2017 S/S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및 디자인 트렌드 세미나에서는 현대인이 추구하는 4개의 감성 키워드와 테마별 CMF(Color, Materials, Finishing)가 제시되었다. 첫 번째 테마인 브리즈는 더 편안하고 나은 삶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감성을 반영하여 바닷가를 연상시키는 블루와 그레

이를 키 컬러로 제안했으며, 두 번째 테마인 코스모폴리탄에서는 현대인의 자기 만족감을 동양과 서양의 느낌이 공존하는 다문화적 요소가 투영된 에스닉 무드로 표현하였다. 세 번째 테마인 트랙스는 현대판 로빈슨 크루소인 머피족(Millennials and Yuppies를 합성한 신조어)을 대변한다. 도심 속에서 살고 있지만 모험을 좋아하고 추구하는 성향을 톤 다운된 블루 컬러와 브라운 컬러로 나타냈다. 마지막 테마인 파라다이스는 상상 속의 산호섬을 모티프로 미지의 세계에 대한 신비로움을 표현하였다. 컬러풀한 인공 낙원을 표현하기 위해 펄 광택이 도는 파스텔컬러를 사용했으며 도시적 감성의 그레이와 브라운 컬러를 함께 제안했다.

기존 전시가 인테리어에 집중한 전시였다면, <리빙앤라이프스타일페어 2016>은 우리 생활과 더 밀접한 의, 식, 주, 키친, 다이닝, 컬처, DIY, 공예, 패션 등 전체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리빙앤라이프스타일페어 2016>은 2월 킨텍스 전시를 시작으로 오는 4월에는 제주에서, 9월에는 부산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 UTILIZING PAINT

## 도료에 대한 궁금증

최근 셀프 페인팅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면서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활용법을 몰라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도료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자.



그림은 아이들의 상상력 계발에 도움을 준다. 화이트보드나 칠판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벗어나 문이나 벽, 책상까지도 그림판으로 만들어주는 스케치페인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 Q 스케치페인트는 무엇인가요?

스케치페인트는 주위의 어떤 공간이라도 쉽게 화이트보드로 만들 수 있는 특수 페인트입니다. 아이들의 방이나 문, 벽면, 책상 어디에나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기존 화이트보드처럼 글이나 그림을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아이의 놀이나 교육을 위해 설치하는 화이트보드나 칠판은 공간 제약이 있으며 청소 부분, 다양한 색상의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스케치페인트는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으며 투명 색상이라 기존의 벽면 혹은 가구의 색 그대로 칠판으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Q 스케치페인트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스케치페인트는 주제와 경화제, 2가지를 혼합해서 사용합니다. 주제와 경화제 비율을 2 대 1로 혼합하여 롤러 혹은 붓으로 바르면 됩니다. 0.9L, 3L 2가지 포장으로 출시되고 있으며, 6.6㎡(약 2평)를 바를 수 있는 양입니다(바르는 사람에 따라 면적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DIY용으로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도장하기 쉽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Q 해외의 유사 제품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물론 타사에서도 비슷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수입 브랜드와 비교해 스케치페인트는 냄새를 최소화해 실내에서 사용하기 좋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현재 판매 중인 '스케치페인트 아쿠아'는 수성 제품으로 소비자가 직접 시공하기 편리합니다.



스케치페인트 아쿠아

## Q 어디에서 구매할 수 있나요?

스케치페인트는 삼화페인트 대리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홈앤톤즈'를 이용하면 함께 페인팅에 필요한 도구까지 세트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Q 건조 시간은 어느 정도이며, 바르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페인트를 칠하기 전 도장 면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벽면에 먼지 등의 이물질이 있다면 도장 후에는 제거할 수 없거나 도장이 깔끔하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페인트를 바른 후에는 반드시 환기하고 도장 준비가 끝난 후 주제와 경화제를 혼합합니다. 그리고 건조 시간을 5시간 이상 충분히 잡는 것이 좋습니다. 보드마크를 사용하고 오랫동안 지우지 않으면 자국이 남을 수 있지만, 물수건이나 알코올을 묻힌 휴지를 사용해 지울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1544-5357로 문의하세요.



## IDEA

## 참 쉬운 페인팅 DIY

페인트를 활용해 아름다운 컬러로 공간을 채우는 것은 생각보다 쉽다. 컬러 선택부터 붓과 롤러로 직접 완성하는 과정을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한다. QR코드를 활용해 동영상도 만나보자.



### 거실 벽, 포인트 스타일링

거실을 색다르게 연출하고 싶다면 뮤럴 벽지와 같은 연출법을 시도해보자. 테이프를 이용해 벽면에 곡선을 만들고 그사이를 물감으로 채운다. 그리고 마르면 뜯어내고 아래쪽에 다시 테이프를 붙여 다른 컬러로 연출한다. 디자인은 쉬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포인트. 시간을 조금만 들이면, 멋진 거실 인테리어가 탄생한다



### 해면 스펀지로 가구 닦칠하기

붓은 가장 보편적인 페인팅 기법의 하나다. 색다른 연출을 원한다면 해면 스펀지를 이용해보자. 스펀지의 결을 그대로 이용해 찍어내듯이 연출하면 가구가 빈티지한 무드로 변신한다.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서 연출하는 것이 좋다.



### 인테리어 페인트의 모든 것

집의 내부 혹은 방 한 칸, 집 안 어디라도 페인트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아이디어를 소개한다. 도구 선택에서부터 준비, 칠하는 순서, 도구 정리와 페인트 보관 방법까지, 가장 쉽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영상을 통해 확인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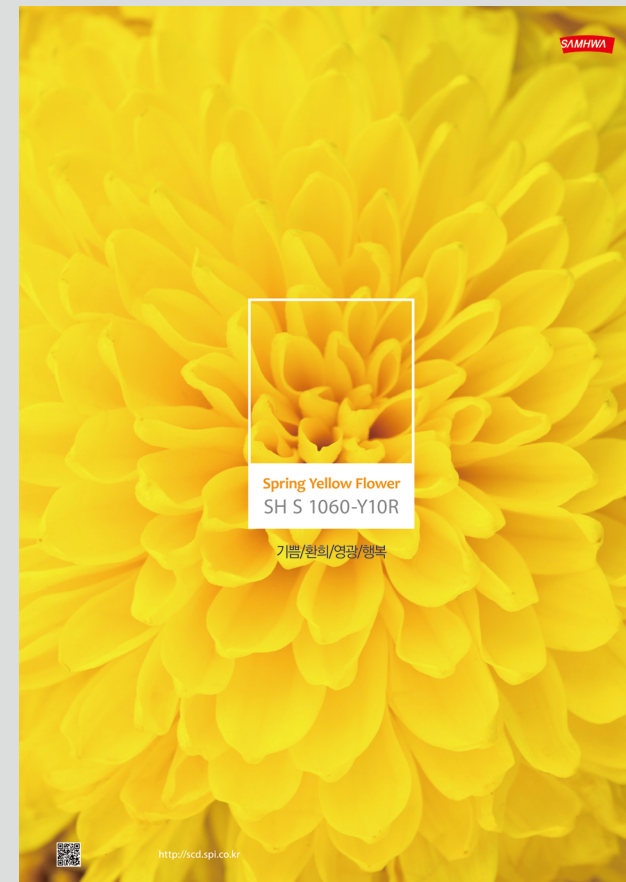
### 분위기 있는 앤틱 가구 연출

오래된 가구에 페인트를 바르면 왠지 가구의 고풍스러움이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럴 때는 유약에 수성페인트를 가미해 좀 더 고풍스럽게 연출해보자. 도료를 바르고 수건을 이용해 하이라이트 부분을 닦아내기만 하면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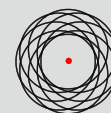


MARCH-APRIL 2016 Vol.24

## 컬러 Q&A



올봄 시즌 컬러 테라피 포스터 컬러는 'Yellow'입니다. 'Yellow'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컬러매거진> Vol.24 게시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하여 영화 관람권을 보내드립니다.



**S/C/D**  
Samhwa Paints Color Design Center

발행인 김향란 센터장  
기획 상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  
참여 김효정, 이미지 주임연구원  
제작 라방센스 편집부 디자인 커뮤니케이션디오  
사진 서울문화사 자료실, 상화페인트